

[**종합·해설**]

“남북문제도 실용정신으로”

李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서 대북정책 ‘상호주의’ 원칙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며, 남한이 남북경협 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북한도 이에 부응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실용정신을 가져가겠다”고 천명했다.

◇“비핵화 규정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지키기” =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첫 번째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다.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핵 포기를 강력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것도 들어 있는데 비핵화는 대한민국에서만 바라는 게 아니라 북한도 합의한 바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은 북핵포기를 위해 6자회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해야” =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선 남북이 모두 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늘

일을 부르짖는데 과연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통일의 구호였는지, 전략적 의미의 구호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과거에 묶어 있으면 미래를 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는 남북간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나갈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방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더 화해를 하고 평화를 늘리며 공동번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협력을 받고 협력을 하는 관계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북한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남한의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총선 승리” 다짐... 분주한 행보



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26일 통합민주당 전남 후보자(맨 위), 평화통일가정당 광주 후보자(가운데)들은 각각 국립 5·18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노동당 광주 후보자(아래)들은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앞에서 총선 출정식을 가졌다. /위직량·니명주기자 jrwi@kwangju.co.kr

한, 총선공약 250개 발표

한나라당이 유가,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6대 생활비를 절감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포함한 4·9 총선 공약 250개를 발표했다.

이헌구 정책위의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취약계층도 미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12개 비전과 44개 목표, 250개 세부 실천과제로 나뉘어 있다.

12개 비전으로는 ▲중산층 경제발전 ▲서민경제 활성화 ▲농어촌·농식품 ▲중소기업 ▲미래성장산업 ▲교육 ▲외교·통일·국방·통상 ▲지역발전 ▲가족·여성행복 ▲환경·노동·복지 ▲문화·예술 ▲정치·행정서비스 등으로 돼있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민·소외층까지 아우르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으로 돼있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영어 공교육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우선 물가안정과 서민소득 향상을 위해 전기세 등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일부 “개성공단 3통문제 우선 해결”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목표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으로, 통일부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

한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등 4대 원칙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하중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기확단을 구성해 나가게 되면서 북핵 상황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 구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상생의 남북경제협력 확

대를 위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산림과 농수산, 자원 개발 분야에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 북한 내 상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해 분배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NLL 어떤 일 있어도 지켜내야 할 선”

창군 사상 첫 합참의장 인사청문

창군 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대장·육사 29기) 합참의장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상 현역군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군통수권자의 통수지침을 구현하고 선진 강군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어떠한 유형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

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전쟁억제와 전승보장을 위한 한·미 군사유대강화, 한국군 주도의 전진작전능력 구비, 한국적 군사전략 발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등 대외군사협력 강화 등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내정자는 “NLL(북한개성선)이 영토개념이 갖느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며 “거의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사내번호 228160 또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체국계좌에 입금해주셔야
신속하게 게재해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임·초빙·영입·모임
사실금융·매매·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062)227-9600 ·FAX:227-9500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우편: 001-107-228160 ◆통신판매: 017-01-106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第5期 決算公告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잔액	계정과목	잔액
I. 유 동 자 산	66,354,930,038	I. 유 동 부 채	66,133,726,715
(1) 당 좌 자 산	28,297,907,765	1. 매 입 채	28,123,673,407
1. 현 금 및 현금 동 가	4,647,691,303	2. 미 지 채	3,125,387,529
2. 당 기 대 여 금	945,057,260	3. 예 수	40,613,710
3. 분 양 미 수	18,019,547,360	4. 부 가 세 예 수	699,080,357
4. 미 수 금	849,829,933	5. 선 수	12,290,552,680
5. 선 수 금	1,501,940,481	6. 단 기 차 수 입 채	19,000,000
6. 선 금 비 용	667,010,407	7. 미 지 채 비 용	75,892,019
7. 부 가 세 대 채	-	8. 유 동 성 장 기 부 채	7,100,000,000
8. 선 입 세	13,308,840	9. 분 양 선 수	13,406,065,184
9. 주 입 증 단 기 채 권	166,000,000	10. 말 코 니 선 수	930,481,819
10. 선 입 공 사 비	1,497,522,181	11. 주 입 증 단 기 차 입 금	50,000,000
(2) 예 고 자 산	38,057,922,273	II. 비 유 동 부 채	18,340,000,000
1. 건 설 용 지	23,947,544,461	1. 장 기 차 입 채	70,000,000
2. 미 완 공 사 (분양)	14,109,477,822	2. 임 대 부 채	84,473,726,715
II. 비 유 동 자 산	20,056,144,358	자 본	-
(1) 부 가 자 산	7,466,622,084	I. 자 본	1,500,000,000
1. 장 기 금 융 증 권	44,000,000	1. 자 본	1,500,000,000
2. 매 도 가 능 여	6,933,590,861	II. 자 본 잉 여 금	-
3. 장 기 채 권	289,031,233	III. 자 본 조 성	△4,984,000
4. 물 자	11,214,706,434	1. 주 식 합 인 발 행 차 금	△4,984,000
5. 토 지	3,974,784,469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
6. 비 유 동 자 산 지	3,910,724,077	V. 이 익 잉 여 금	442,331,681
7. 감 가 상 각 누 계	△96,513,902	1.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442,331,681
8. 차 탐 운 반 구	67,828,315	(당기순이익)	3,096,490,927원
9. 감 가 상 각 누 계	△24,744,024	전기 : △2,731,412,666원	
10. 비 유 동 자 산 지	570,133,417	평가 : △2,731,412,666원	
11. 감 가 상 각 누 계	△300,495,407	자 본 총 계	1,937,947,681
12. 설 비	2,704,048,62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6,411,074,396
13. 시 설	73,424,926		
14. 감 가 상 각 누 계	△40,282,062		
(3) 무 형 자 산	1,574,815,83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574,815,830		
1. 임 차 보 증 금	55,190,000		
2. 기 타 보 증 금	1,519,625,830		
자 산 총 계	86,411,074,39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6,411,074,396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3월 27일

(주) 예주주택건설

대표이사 **최영진**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79호 감사반 공인회계사 안중열
공인회계사 김재현
공인회계사 이윤창

第31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資 産 之 部	負債 및 資本 之 部
I. 流 動 資 産	I. 流 動 負 債
(1) 現 金 及 現 金 等 價 物	1. 買 入 借 入 金
1. 現 金 及 現 金 等 價 物	2. 短 期 借 入 金
2. 預 金	3. 未 支 給 貸 金
3. 有 價 證 券	4. 未 支 給 受 取 金
4. 債 權 有 關 金	5. 預 支 金
5. 債 權 有 關 金	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 債 權 有 關 金	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 債 權 有 關 金	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 債 權 有 關 金	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 債 權 有 關 金	1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 債 權 有 關 金	1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 債 權 有 關 金	1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2. 債 權 有 關 金	1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3. 債 權 有 關 金	1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4. 債 權 有 關 金	1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5. 債 權 有 關 金	1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6. 債 權 有 關 金	1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7. 債 權 有 關 金	1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8. 債 權 有 關 金	1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9. 債 權 有 關 金	2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0. 債 權 有 關 金	2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1. 債 權 有 關 金	2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2. 債 權 有 關 金	2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3. 債 權 有 關 金	2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4. 債 權 有 關 金	2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5. 債 權 有 關 金	2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6. 債 權 有 關 金	2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7. 債 權 有 關 金	2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8. 債 權 有 關 金	2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29. 債 權 有 關 金	3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0. 債 權 有 關 金	3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1. 債 權 有 關 金	3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2. 債 權 有 關 金	3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3. 債 權 有 關 金	3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4. 債 權 有 關 金	3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5. 債 權 有 關 金	3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6. 債 權 有 關 金	3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7. 債 權 有 關 金	3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8. 債 權 有 關 金	3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39. 債 權 有 關 金	4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0. 債 權 有 關 金	4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1. 債 權 有 關 金	4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2. 債 權 有 關 金	4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3. 債 權 有 關 金	4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4. 債 權 有 關 金	4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5. 債 權 有 關 金	4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6. 債 權 有 關 金	4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7. 債 權 有 關 金	4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8. 債 權 有 關 金	4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49. 債 權 有 關 金	5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0. 債 權 有 關 金	5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1. 債 權 有 關 金	5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2. 債 權 有 關 金	5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3. 債 權 有 關 金	5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4. 債 權 有 關 金	5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5. 債 權 有 關 金	5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6. 債 權 有 關 金	5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7. 債 權 有 關 金	5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8. 債 權 有 關 金	5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59. 債 權 有 關 金	6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0. 債 權 有 關 金	6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1. 債 權 有 關 金	6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2. 債 權 有 關 金	6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3. 債 權 有 關 金	6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4. 債 權 有 關 金	6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5. 債 權 有 關 金	6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6. 債 權 有 關 金	6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7. 債 權 有 關 金	6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8. 債 權 有 關 金	6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69. 債 權 有 關 金	7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0. 債 權 有 關 金	7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1. 債 權 有 關 金	7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2. 債 權 有 關 金	7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3. 債 權 有 關 金	7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4. 債 權 有 關 金	7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5. 債 權 有 關 金	7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6. 債 權 有 關 金	7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7. 債 權 有 關 金	7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8. 債 權 有 關 金	7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79. 債 權 有 關 金	8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0. 債 權 有 關 金	8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1. 債 權 有 關 金	8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2. 債 權 有 關 金	8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3. 債 權 有 關 金	8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4. 債 權 有 關 金	8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5. 債 權 有 關 金	8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6. 債 權 有 關 金	8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7. 債 權 有 關 金	8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8. 債 權 有 關 金	8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89. 債 權 有 關 金	9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0. 債 權 有 關 金	9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1. 債 權 有 關 金	9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2. 債 權 有 關 金	9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3. 債 權 有 關 金	9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4. 債 權 有 關 金	9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5. 債 權 有 關 金	9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6. 債 權 有 關 金	9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7. 債 權 有 關 金	9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8. 債 權 有 關 金	9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99. 債 權 有 關 金	10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0. 債 權 有 關 金	10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1. 債 權 有 關 金	10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2. 債 權 有 關 金	10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3. 債 權 有 關 金	10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4. 債 權 有 關 金	10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5. 債 權 有 關 金	10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6. 債 權 有 關 金	10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7. 債 權 有 關 金	10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8. 債 權 有 關 金	109.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09. 債 權 有 關 金	110.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0. 債 權 有 關 金	111.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1. 債 權 有 關 金	112.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2. 債 權 有 關 金	113.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3. 債 權 有 關 金	114.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4. 債 權 有 關 金	115.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5. 債 權 有 關 金	116.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6. 債 權 有 關 金	117.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7. 債 權 有 關 金	118. 未 支 給 貸 金 負 債
118. 債 權 有 關 金	11